

## 추가경정예산안은 '선거용 돈풀기'와 무관하며,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할 예정입니다.

### <보도내용>

- 2026.3.15. 문화일보는 「지방선거 코앞 추경 최대 20조...나랏빚 1400조 시대에 재정 건전성 '흔들'」 제하의 기사에서,
  - 추경 규모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6·3 지방선거를 앞두고, '선거용 돈풀기'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<기획예산처 입장>

- 정부는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,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'선거용 돈풀기'와는 무관합니다.
  - 특히, 에너지 수급, 해운·물류,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,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과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- 금번 추경은 민생 및 경제·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할 예정이며, 향후에도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수 (kjs62@korea.kr)